

종합

10명까지 타는 '대형택시' 8월부터 광주서도 달린다

기본요금 3200원

광주에서 또 오는 8월부터 최대 10명이 탈 수 있는 대형택시(사진)가 운행한다.



으로 책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형택시는 신규면허가 아닌 기존 개인(모범) 및 법인택시 사업자 중 사업 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운행되기 때문에 전체 택시 수에는 변화가 없다"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에서 이미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또 오는 8월부터 최대 10명이 탈 수 있는 대형택시(사진)가 운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형택시는 신규면허가 아닌 기존 개인(모범) 및 법인택시 사업자 중 사업 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운행되기 때문에 전체 택시 수에는 변화가 없다"며 "서울·부산·대구·인천 등에서 이미 대형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4대강사업' 홍보 지자체에 떠넘기나

선관위 "법규 위반" 규정 속 정부 시·도 '정책자문단' 구성 지시 논란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정부 지시에 따라 4대강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지시는 4대강 홍보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찬·반 의사표명 활동을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정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선 거 중립 의무'를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전국 16개 시·도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 '지역 실정에 맞는 4대강 홍보'와 '시민동참과 불 조성을 통한 정파적·이념적 반대 극복'을 위해 지역 내 수질, 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더 나아가 자문단의 기능

을 '지역 정책자문과 교육 감사, 홍보 전문가 역할 수행'으로 설정했으며, 구체적으로 자문위원들을 일선 학교와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언론 기고와 방송출연 등을 통한 홍보에도 나설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행안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수자원·수질·생태환경·경관조경 전문가 50명으로 '전남도 영산강 살리기 정책자문단'을 구성, 지난 27일 발족식을 가졌다. 광주시도 지역 전문가 27명으로 '광주시 영산강 살

리기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으며, 다음달 초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영산강 수질이 4대강 가운데 최악이라는 점, 그리고 오염된 강과 토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왔다"며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기는 하지만, '영산강살리기 정책자문단'은 행정적으로 필요한 기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의 이번 4대강 자문단

운영 지시는 그동안 4대강 사업을 총괄해온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일선 시·도에 정책자문단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4대강 유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행안부가 홍보 강화 차원에서 계획을 하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지난 27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쟁점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국토부가 전국에 걸쳐 홍보수요를 선거종류시까지 잠정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현석기자 redplane@kwangju.co.kr

"나로호 발사 성공 기원합니다"

항공우주연 전국민 대상 퀴즈 이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주진)은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2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호의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에게 나로호 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나로호 대국민 퀴즈이벤트'를 개최

한다. 퀴즈이벤트는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참여방법은 나로호 발사캠페인 홈페이지(www.kslv.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된다.

/연철뉴스



"떡잡채 맛있어요"

28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도음식박물관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30여명이 한국 전통 궁중음식인 '떡잡채'를 직접 만든 뒤 점시에 담아 들어보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담양·장성 정류장도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안내

광주시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나주·담양·장성 등 광주 인근 시·군민들도 정류장에서 버스 도착시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28일 "나주·담양·장성 등 3개 시·군에서도 버스도착시간 안내가 가능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MS)구축사업을 다음달 시작해 운영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59억원의 예산을 투입, 나주·담양·장성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212대에 단말기를 뒤 BIMS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광주 100개, 나주 20개, 담양 10개, 장성 15

개 등 승강장단말기(BIT) 145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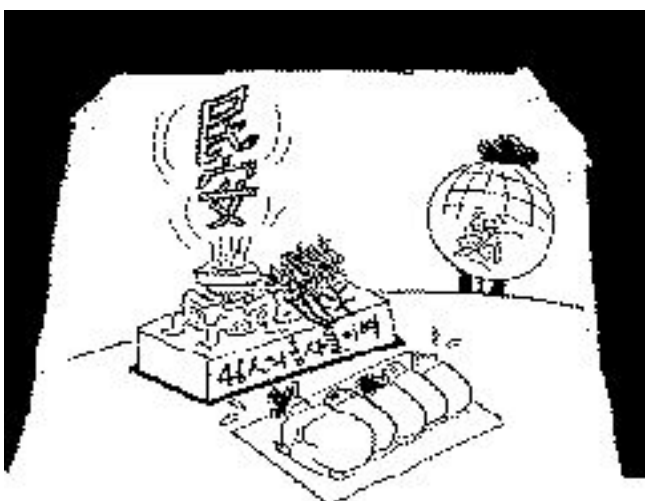
이번 사업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해 이들 시·군과 광역BIMS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순과 함평은 군내버스 업계의 반발로 이번 협약과정에서 제외됐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광주시민, 각 시·군 주민이 실시간으로 시내·외버스 도착·운행정보를 안내단말기(BIT), 자동응답(ARS), 휴대폰(Wap), 인터넷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동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1조8000억"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운 대표는 28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납득이 없게 되는 경제적 손실액은 1조8778억원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서 "관광 중단에 따른 유·무형 경제 손실로 나타날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대아산의 사업권 및 시설 등 자체 투자액 9억8669만7000달러(1조1051억원, 1달러 당 1120원 적용시)와 2268억8000만원 ▲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타 업체들과 이산가족전화회 등 '외부 투자액' 1879억9000만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368억4000만원 ▲금강산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8억6000만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272억2000만원(월평균 13억6000만원)을

합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계산했다.

김 대표는 "계획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해 나타나는 손실에는 (역수로 환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 생산, 고용 유발 효과도 포함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비록 GDP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남북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종료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연철뉴스

여수박람회 사무총장에 김근수씨 선임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식)가 선임 사무총장과 감사를 선임하는 등 박람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조직위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관계 및 산업계 인사로 구성된 조직위원회 제6차 위원총회를 열고 선임 사무총장에 김근수(52) 전 대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사업지원단장을 선임했다. 또 선임 감사로 조병국(54) 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취임준비위원을 선임했다.

위원총회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 7일 개정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후속조치로 회계처리절차 간소화 등 정관을 개정,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선임 사무총장과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초 취임할 예정이다.

전임 김병일 사무총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지희기자 dok2000@

분실: 골프회원증 No. J07-11-0407, 김해피트니스C.C, 김석민, 삼기 회원증(大小) 분실공고함.

임시 총회 소집 안내: 우리 문중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비보신 중이라도 빠짐 없는 참석 바랍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C·C 사원 모집: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자리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무인텔 매각공고: 대 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특징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금산공인중개사: T.681-5686 H.011-801-5354 (서광주역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집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아리울공인중개사: ☎ (063)583-7788 ☎ 010-8004-5900 (전북 서해안, 새만금 전문임). ▶펜션건물(투자, 직영, 임대).

광주일보: 오늘익퀴즈 -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광주일보는 애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영화표 2장씩을 드립니다.

오늘익퀴즈: 영화관람권을 드립니다. 광주일보는 애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영화표 2장씩을 드립니다. 퀴즈의 정답은 광주일보 광고면에 있습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C·C: 1. 모집요강, 2. 제출서류, 3. 복지제도, 4. 접수방법.